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0 상반기호

확장하는 가족의 안과 밖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0 상반기호

확장하는 가족의 안과 밖

CONTENTS

<아젠다 기획>

가족적인 것의 확장 : 유사성과 차이성(류도향)	04
관계원리로서의 인접성 탐구(김청우)	11
로힌턴 미스트리의 「가족 문제」에 나타난 인도 종파주의와 공동체 문제(김은영)	17

<연구동향>

<인포그래픽> 토픽모델링으로 본 한국가족 연구 지형과 변화	27
<연구> 토픽모델링으로 본 2000년대 이후 한국가족 연구 지형과 변화(추주희)	28
<정책보고서 리뷰>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2): 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 돌봄정책 추진전략	36

*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전화 062-530-3234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아젠다 기획

- 가족적인 것의 확장 : 유사성과 차이성(류도향)
- 관계원리로서의 인접성 탐구(김청우)
- 로힌턴 미스트리의 「가족 문제」에 나타난 인도 종파주의와 공동체 문제(김은영)

* 아젠다기획은 기존의 가족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함께 '가족친화인문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합니다.

가족적인 것의 확장 : 유사성과 차이성

- 류도향(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1. 1인 가구 시대, 가족다양성 담론의 이데올로기

“최근 2015년부터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된 것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가족담론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른바 ‘가족정상성’이 균열하면서, 1인가족, 동거가족, 분자가족, 주거공동체, 생활공동체, 비혼공동체, 덩크족, 팻팍 등 생소하고 낮은 가족어휘와 서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적·기술사회적·인구학적 구조변동, 개인의식과 욕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사회문화현상 속에서 건강가정담론의 보조담론에 머물렀던 ‘가족다양성담론’이 주류화되고 있다.¹⁾

한 보수언론매체를 예로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2019년 “다양한 가족이 사회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적극적 옹호의 기사가 눈에 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성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효용이, 변화로 인해 잃는 전통적 가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점은 단지 몇 차례의 일회성 캠페인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²⁾

이 기사는 가족다양화 현상을 가족해체로 보는 부정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가치’보다 큰 ‘사회적 효용’(출산율 증가, 경제 발전, 국가경쟁력 제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치 1920, 30년대 민족주의적·계몽주의적 지식인이 전통가족을 문명화의 장애물로 비판하면서 민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족 개량을 주장하고, 60년대 국가가 2.9%대의 출산율을 야만의 상징으로 힐난하면서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가족에게 합법적 괴임과 낙태를 강요한 것처럼, 가족형태의 변화가 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를 탈신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20세기 소가정 담론, 가족계획담론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근대적인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조건을 투영한 것이듯, 21세기 가족다양성담론은 표면적으로 사회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과 신 자유주적 생산

1) 가족다양성 담론은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승권,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참조) 하지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자녀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그 이외의 가족을 ‘결손가정’ 혹은 ‘가정해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하거나 정상가족에서 파생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리키는 보완적 담론으로 머물러 있었다.

2)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주간조선』 스페셜 리포트 2019년 9월 25일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9&nNewsNum=002575100006>

* 이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연구』 21권 1호에 게재된 동명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양식의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경제적 산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혈연가족을 넘어 그 의미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가족현실에 접근할 때 정치경제적 조건이 가족이라는 말의 질서를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인문학적 가족연구를 위한 방법적 개념: '가족적인 것'

사회학은 가족을 사회화의 기본단위 또는 사회를 이루는 최소집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정한다. 물론 사회학 내부에서도 가족을 사회재생산의 기능소로 보느냐, 개인 단위의 실천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가 달라지지만, 사회적 사실로 가족현실을 환원시켜 일관되게 설명하려는 사회학주의를 견지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법학에서는 가족을 규범적 승인을 전제로 한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정한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혈연관계로 정의한다(민법 제779조). 이때 양당사자간의 혼인계약(서로를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갖겠다는 의사합치)과 이성애는 가족과 비가족을 구분하는 강력한 규범요건으로 작용한다.

이와 달리 인문학은 가족이 무엇인지에 관해 민속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통계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유보하고 가족이 형성된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면서 가족을 규정하는 사회적 사실과 규범적 승인의 토대를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나아가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것들을 구제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단편적, 평면적으로 보였던 가족현실을 가능한 총체적으로 복원하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은유를 발굴하는 데 인식관심이 있다.

이 글은 인문학의 관점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가족현실을 이론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20세기 핵가족 패러다임으로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 가족 확장의 원리를 새롭게 탐색하려는 시도다. 여기서 나는 명사화되고 사물화된 '가족(The Family)'으로 환원되지 않는 형용사 '가족적인 것'(the familial)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가족적인 것은 한편으로 전통가족/현대가족, 혈연가족/비혈연가족, 가족중심주의/개인화의 이분법에 토대를 둔 기존 가족담론의 한계를 탈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경제가 사회영역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밀영역을 식민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현실에 맞서 대안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³⁾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가족적인 것은 근대가족담론에서 표준 또는 정상으로 간주된 가족과 동일화할 수 없는 가족들을 포괄하면서, 가족을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또는 교환 관계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장소로 낭만화하거나 실체화하는 데 저항하는 개념이다. 또한 그것은 개인-가족-사회-국가의 지형학적 위계구도로 포섭되지 않는 가족적 관계 공간들의 위상학을 지시하면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한, 때론 가족보다 더 가족적인 관계성을 통해 가족의 보편적 가치를 재설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대정신의 요구를 품고 있다.

3) 이러한 시도는 19세기 서양에서 '정치적인 것 the political'과 구별지어 '사회적인 것 the social'이 새롭게 정식화되었던 개념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구별의 의식이 형성된 것은 1840년대였는데,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 인 것은 크게 구별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당시 이 두 개념이 분화된 계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지나간 정치적 혁명을 넘어 어떤 도래할 사회적 혁명을 역사철학적 과제로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Joachim Ritter, Karlfried Gründer(her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9*, Schwabe & Co AG-Verlag-Basel, 1995, 1117-1118쪽 참조) 나는 사회적 것이 정치경제적인 것에 의해 식민화된 21세기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일상적인 미시관계의 혁명을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기 위해 가족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가족적인 것 : 신체를 매개한 공동체성

지금까지 근대 가족담론에서 제도적 가족으로 포섭되지 않는 가족의 확장원리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친밀성(Intimacy)’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서양의 친밀성 개념은 자연적으로 표출되는 혈연성과 자식과 부모의 사랑에 바탕을 둔 동양의 친친(親親)과는 다른 역사적, 종교적 맥락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실존적 느낌에 기반한 정신화된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자칫 신체에 수반된 질적 차이를 배제한 추상적 연대에 한정될 수도 있다. 물론 친밀한 관계는 정서와 섹슈얼리티를 공유하지만 개인을 주체로 상정하는 지점에서 자칫 ‘감정의 합리화’, ‘관계의 탈신체화’, ‘사랑의 탈만남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차가운 친밀관계를 조장할 위험 또한 안고 있다.

근대의 친밀성 패러다임으로 축소되지 않는 가족적인 것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라는 공적영역과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오이코스(oikos)라 불렸던 사적영역은 신체적 욕구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생산 활동이 이뤄지던 장소이자, 물질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를 의미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보다는 ‘살림살이’ 또는 ‘식구’에 가까운 말이지만, 물질적 공유의 의미로만 환원되지 않는 가족적 공간의 발생 연원을 함축하고 있다.⁴⁾

폴리스는 각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장소였다. 그와 달리 오이코스는 신체를 지닌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연성과 무상함에 매여 있고, 가부장의 일인 지배체제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다.⁵⁾ 고대 그리스인은 정치 영역 밖에서 오직 ‘자신의 것’(idion)과 씨름하는 사적인 삶을 ‘백치와 같은 삶’(idiotic)으로 여겼고,⁶⁾ 이 때문에 오이코스는 부자유하고 인간성이 박탈된 장소를 의미했다.

하지만 사적인 것이 오로지 박탈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자신의 주저인 『인간의 조건』에서 근대에 등장한 친밀영역이 사적영역의 완전한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오이코스에 내포된 “박탈적인 것의 비박탈적인 성격”(nicht-privative Charaktere des Privaten)을 환기시킨다.⁷⁾

사적인 것은 친밀성보다 먼저 발견되었고 또 그와 무관하다. ... 공론영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가 박탈된다는 부정적 측면만 두드러지는 사적영역의 필연성은, 인간의 이른바 더 높은[정신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충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Kraft)을 가진다.

... 사적인 것의 두 번째 비박탈적 성격은 사적 소유의 네 벽이 공적 세계로부터 숨을 만한 유일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 오로지 공적영역에서, 즉 타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보내는 삶은, 흔히 말하듯 천박해진다. 이런 삶은 가시성을 보유하지만, 어두운 곳으로부터 세계의 밝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매

4) 정성훈은 오이코스의 가장 적합한 번역어를 살림 혹은 살림살이라고 제안하며, 정치공동체와 구별된 맞-기능 공동체로서 살림공동체의 기원을 오이코스에서 찾는다. 나는 오이코스에 대한 정성훈의 해석이 기존의 사회적 기능체계에 맞서는 협동과 포용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그의 관점이 “현대사회의 기능체계가 잘 기능”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것이 점점 더 우리의 생활세계로 (내밀한 충동과 인격적 소통에 대한 열망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막연하게 긍정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고립시키는 정치경제 시스템 속에서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림살이의 절박한 필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필요를 함께 건디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 정성훈 외, 『협동과 포용의 살림공동체: 이론, 역사, 인천사례』, 보교사, 2019, 36쪽, 76쪽.

5)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100쪽.

6) 앞의 책, 109쪽.

7) 앞의 책, 146쪽. 강조는 필자의 것임.

우 **현실적이고 비주관적인 의미에서 깊이**를 잃지 않으려면 이 어두움은 반드시 숨겨져 있어야 한다.⁸⁾

위 인용문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사적인 것은 인간의 신체적 힘, 생의 추진력과 관련된다. 이는 유기체적 생명체인 인간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생의 조건이며, 폴리스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무감각(apatheie)’과 ‘주도성(initiative)의 상실’을 막아준다. 그녀는 인간이 자유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현전하는 타자들을 향해 내보이는 활동을 인간의 본질인 자유로 보았다. 하지만 신체적 힘과 활동이 선행하지 않으면 이런 자유는 불가능하다.

둘째, 사적인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대체불가능한 삶의 객관적 깊이를 갖게 한다. 사적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사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동세계에서 교환되는 사회적 재화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신체적 고통은 가장 사적이며 그래서 대체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고통은 공적인 무대에서 모두와 함께 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지만, 동일한 이유에서 한 사람을 고정적이고 확고히 자리 잡은 자연세계의 한 부분으로 정박시켜준다.

사적 영역의 이런 비박탈적 계기는 일차적으로 인간을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고립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바로 이 비박탈적 계기를 통해 인간은 정치적 권리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공동체를 회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⁹⁾ 인간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생태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자연으로서 의존, 필요, 충동, 고통,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자유와 인간성이 박탈된 전-정치적 영역에서 신체를 매개로 마주하는 인간 공통의 어두운 면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서로 의존하며 지지할 수 있는 친화적 관계를 상상하고 권리주장하게 만드는 핵심 계기로 보인다. 신체라는 유기체적 조건에 기초한 친화적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유기체와 사물들, 자연 및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아우른다.

요약하자면 신체매개적 공동체성은 인간의 근원적 부자유와 취약함을 마주할 때 출현하는 공동의 장소, 도구적 관계에서 벗어난 증여와 선물, 타자와 유사해지면서 나와 타자의 질적 차이를 경험하는 성장과 같은 계기들을 파생하면서 가족적인 것을 지시한다.

4. 태도로서 가족확장원리 : 유사성과 차이성의 변증법

3절에서 논의한 신체매개적 공동체성은 혈연이나 친족과 같은 자연발생적 원형으로 실제화될 경우, ‘자연발생적 가족주의’의 신화를 유포하거나 또 다른 명사적 가족들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신체매개적 공동체성이 하나의 태도이자 체현된 습관으로서 관

8) 앞의 책, 145쪽, 독일어본(Vita activa, Piper Verlag GmbH, München, 2002, 85쪽)과 대조하여 수정함.

9) 아렌트는 사적 영역에서 비박탈적 계기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연세계와 인간의 신체를 노동의 범주에 귀속시킨 이론틀을 견지했기 때문에 부자유한 인간들의 사적 생활공간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함께-하기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계성으로 이해될 때 가족적인 것이라는 유동적 원리가 설명력을 갖는다.

20년 가까이 수양부모협회를 만들어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봐온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는 자신이 비혈연 가족관계를 확장해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9년 미시간 시댁에 첫 인사를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멋내고 갔는데 시부모님은 당시 한국 아이 3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나라는 잘산다면서 왜 아이를 버리냐’고 묻기에 우리나라는 족보나 핏줄을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그건 특별해서가 아니고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¹⁰⁾

혈연과 친족관계를 인륜의 바탕으로 여기고, 자식에 대한 희생과 부모에 대한 효를 일상의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체득한 한국인에게 박영숙 대표의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번 맺어지면 마치 완결된 관계인 것처럼 사물화된 태도로 대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우리 가족문제의 진짜 핵심이 아닐까.

나는 가족적인 것이 언어와 의식 이전에 체현된 태도를 통해 발현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비판이론 1세대가 사용한 친화성(Affinität) 개념에 주목한다.¹¹⁾ 여기서 친화성이란 개인과 주체를 중심에 둔 친밀성과 달리, 객체를 우위에 놓고 객체에 동화하고 그것과 유사해지려고 하는 미메시스적 태도에 중심을 둔다.¹²⁾ 친화성은 주체와 객체를 대상화하는 정신이나 의식작용보다, 현대 뇌과학에 의해 밝혀진 거울뉴런의 작용처럼 상대방의 느낌과 정서 상태를 따라체험하는 신경감응(Innervation)에 의해 주도되며 경직된 동일성 사유를 해체시키면서 섬세한 차이들을 경험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미메시스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타인을 인식대상 또는 도구적 실천대상으로 삼지 않고 어떤 의도도 갖지 않은 채 타인에게 밀착해서 타인을 지각하고 내면으로부터 따라하기를 좋아한다.¹³⁾ 이 과정은 신체를 매개로 미지의 것, 비동일적인 것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림 없이 그것들을 더듬는 데로 이끈다. 미메시스적 태도의 목표는 타자의 현상과 표현을 추체험하는 일인데, 이 추체험의 과정에서 우리는 타자에 동화되면서 세계와 관계를 맺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타자와의 유사성을 낳는 미메시스적 태도는 차이성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으로 풍차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풍차가 나의 다른 대상임을 파악해가듯이, 타자와 유사해지려는 태도는 타자와 나를 변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메시스 이론을 가족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가족은 보통의 사회적 관계와 달리 미메시스적 태도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특징지어지며, 가족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고 삶의 기본적인 리듬과 문제 해결 방식을 신체의 차원에서 모방한다. 이는 어떤 규칙, 원칙, 계산, 추론을 따르지 않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먹고

10) 아렌트는 사적 영역에서 비박탈적 계기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연세계와 인간의 신체를 노동의 범주에 귀속시킨 이론들을 견지했기 때문에 부자유한 인간들의 사적 생활공간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함께-하기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11)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최성만 옮김, 길, 2008, 296쪽. 벤야민과 아도르노가 20세기 파국에서 미시적 유물론의 새로운 지형을 구축하기 위해 친화성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류도향, 「부정적 인문학으로서 유물론: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유물론 논쟁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84집, 2017 참조.

12) 군터 게바우어, 크리스토프 볼프, 『미메시스: 사회적 행동, 의례와 놀이, 미적 생산』, 최성만 옮김, 글항아리, 2015, 20쪽.

13) 군터 게바우어, 앞의 책, 127쪽 참조.

쉬고 자는 일상생활을 반복하면서 무의식적이고 비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를 매개한 유사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적 관계로 대체될 수 없는 운명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이 동화되고 유사해지는 과정은 온몸으로 서로의 다름과 질적 차이를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생활을 할 때 속내를 감추고 타인과 이득이 되는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취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살과 표정이 맞닿는 인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이 나와 상이한 충동과 욕망을 지닌 존재임을 내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런 질적 차이를 반성적으로 견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 없이는, 가족이 너무 쉽게 사회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가족이테올로지, 의례나 소비재 등)을 단순히 흉내내는 잘못된 미메시스의 관계(사물화된 관계)로 퇴화한다. 더구나 가족적인 것은 동질성에 기반한 순수한 공동체를 신화화하면서 차이와 타자성을 억압하는 폭력의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사성과 차이성의 변증법을 어떤 방식으로 습관화하고 체득하고 있는지가 가족의 확장성을 논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상대에 감응하고 닮으면서 나와 너의 차이를 존중할 태도를 약속하는 것이다. 나와 내가 함께 또 따로 살아가면서 가깝고 또 멀리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가 저마다의 특수한 경험과 서사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 숙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친하고 편안한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필요와 욕망을 가진 존재와 몸을 부대끼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모든 것을 경쟁과 교환의 질서로 내모는 자본주의적 사회법칙에 맞서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사회적 자아로 환원되지 않는 자기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너와 나의 돌봄의 과정일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가장 내적인 충동과 욕망까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길들여야 하는 강압 아래서,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면서 조금 더 나답고 너다운 삶을 함께 연습하고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안에서 우리는 가족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헤러웨이가 말한 “부정의 방식으로 아는 것”, 즉 [누구, 무엇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투사물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서 가족애로 칭할 수 있지 않을까.¹⁴⁾

14) 도나 헤러웨이, 『헤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책세상, 2019, 178쪽.

참고문헌

- 게바우어, 군터, 볼프, 크리스토프(2015) 『미메시스 : 사회적 행동, 의례와 놀이, 미적 생산』 최성만 옮김, 글항아리.
- 김승권(201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도향(2017) 『부정적 인간학으로서 유물론: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유물론 논쟁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84, 323-349.
- 벤야민, 발터(2008)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최성만 옮김, 길.
- 아렌트, 한나(2017)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 정성훈 외(2019) 『협동과 포용의 살림공동체: 이론, 역사, 인천사례』 보고서.
- 해러웨이, 도나(2019)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책세상.

- Joachim Ritter, Karlfried Gründer(herg.)(1995),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9, Schwabe & Co AG·Verlag·Basel.
-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주간조선』 스페셜 리포트 2019년 9월 25일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9&nNewsNumb=002575100006>
- 「스페셜 리포트 신가족 보고서 가족혁명이 시작됐다」 『주간조선』 2016년 7월 11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 /viw.asp?ctcd=c02&nNewsNumb=002415100011>.

관계 원리로서의 인접성 탐구

- 김청우(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물리적 원근(遠近)과 마음의 원근

기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음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근래 ‘가족’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을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음”,¹⁾ 즉 무목적적 모듬의 실현 양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면면에 ‘인접성’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것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접성은 일차적으로 ‘가까움’과 그 정도를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공간’의 문제를 포함한다. 흔히 ‘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랑’, ‘관심’, ‘친(親)함’, ‘정(情)’ 등은 한편으로 인접성의 문제, 다시 말해 공간적인 가까움/멀의 원리가 작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²⁾ 인접성은 또한 ‘연결’과 ‘접속’과도 관련된다. 존재는 실체(substance)가 아니며, 그러므로 그 의미 역시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문장에서 주어의 양태가 어떤 술어와 함께 등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는 누군가(혹은 사물)와 어떻게 연결·접속하는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사람의 관계에서 인접성을 논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인접은 심리적 인접과 긴밀히 연관된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유형	물리적	심리적
㉠	가까움	가까움
㉡	멀	가까움
㉢	가까움	멀
㉣	멀	멀

<표> 물리적 인접과 심리적 인접의 관계

여기서 원근의 기준은 개인 주체다. ㉠은 ㉡에 반대되는 경우인 동시에 다른 경우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논리적 요청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나머지 3

1) 박준상, 『떨림과 열림 - 몸·음악·언어에 대한 시론』, 자음과모음, 2015, 179쪽.

2) ‘혈연’을 천부(天賦)로 생각하여 공간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친척도 같은 ‘가족’의 범주에 묶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함께 사는’ 구성원과 그 친척이 결코 똑같은 의미와 심리적 거리를 가질 수는 없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이 ‘가족’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함께 사는 형태의 가족을 원형(prototype)으로 삼은 고도의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의 결과일 뿐이다.

* 이 연구는 『인문학연구』 제 59집에 게재된 동명의 논문을 축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사(narrative)'다. 구체적인 상황과 이야기가 물리적인 가까움을 심리적인 가까움으로 만들기도, 또 물리적인 뒀을 심리적인 가까움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될 때, 실제 획득 가능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점차 적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㉗에는 '자기 자신'이나,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사는(혹은 공통 목적으로 한 공간에 모인) 모둠 구성원의 관계 등이, ㉘에는 멀리 사는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가상공간(인터넷)상의 친구 등이, ㉙에는 도시의 거리나 카페, 광장과 같은 장소에서 (목적 없이) 마주치는 관계 등이 해당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㉘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제에 따르면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운'—'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과는 정반대인—상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해당하는 사례로는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친교가 주로 거론된다. 다시 말해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는 견해는 기술진보를 염두에 둔 특정 입장, 즉 현재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국면이나, 더 나아가서는 실제 대면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와 동일한 정보량을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상공간을 상정한 입장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를 통한 가상공간의 최적화된 구축에서 점차 많은 수의 커뮤니티가 보다 덜 로컬화(localization)되고 있음을 그 증거로 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가상공간의 특성(혹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가상공간에는 바로 '살'을 통해 감지되고 소통되는 '느낌'의 영역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 여기에는, 단지 현실점에서 정보의 생성과 전달 체계가 실재를 대체할 만큼 정교화되지 않았을 뿐이며, 따라서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면—4차 산업혁명이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 전망하는 미래상처럼—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전망하는 입장이 대립된다. 그러나 이는 둘째, 가상공간의 구축에는 막대한 자원과 기술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본의 순환'에 정향(orientation)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비판될 수 있다. 즉 현실은 특정한 방향성을 띠고 기획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하는 '전체'인 반면, 가상공간은 자본의 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욕망의 '개발과 충족'이라는 기제를 통해 기획된 '부분'인 것이다.³⁾ 따라서 가상공간은 현실을 결코 '대체'할 수 없으며, 그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일종의 '자각몽'으로서의 환상세계)일 뿐이다.

박준상에 의하면,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은 '연결'과 '접속'을 표방하는 인터넷은 기실 "원격 감각인 시각"("눈과 머리의 자극")만을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형이상학적 주체, 즉 타자에 대한 끊임없는 대상화를 행하는 관조(觀照)의 주체를 완성하며, 결국 인간들 서로 '떨어뜨리고 고립'시킨다.⁴⁾ 설령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서로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을(신체를 통해) 온전히 경험한 데 따른 것이 아니

3) "이렇게 되는 것은, 기호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인지능력 그 자체를 전체로서 구매하여 노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감수성, 주의력, 소통능력의 파편을 구매하여 그것들을 접속망 속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장치인 접속망이 강력한 유기체가 되고, 산 노동(living labour)은 세포화되어 부품으로 기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2015, 171쪽.

4) 박준상, 「인터넷 문화와 타인과의 관계」, 『초개인화시대, 가능한 공동체와 한국 비평담론의 성찰 - 2019년도 한국비평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9. 11. 22.), 85쪽과 88쪽 참조. 이 점에서 인터넷은 텔레비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tele-vision'은 '먼 곳'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웹2.0 이후, 인터넷은 '실시간 소통-반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엇인가 상호성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기실은 아니지만)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정작 그러한 소통은 결코 자신과 똑같이 피와 살, 그리고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과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라 부분적인 유사성(혹은 공통성) 발견에 의한 것이므로 실상 그 유대란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상화하는 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5) 그 경우, 친밀한 느낌은 투사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와 반대 경우, 즉 몸이 가깝다고 해서 마음 또한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인접이 없이 마음이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소통하며, 따라서 그만큼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거나 감정이입, 공감 등이 이루어질 기회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 차원의 수행에 의한) 지각은 기능상 기억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6) 즉, 다양한 방면의 지각이 활성화될수록 그러한 지평은 더 심화·확장될 텐데, 가상공간은 특정한 수용기의 자극, 특히 시각-행동만을 반복·강화하기 때문에 주체의 삶이 매우 협소해지는 동시에 정신의 절대화(형이상학적 주체)가 야기되는 것이다.7)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살(flesh)', 즉 '온몸'의 촉각에 민감해진다.

직접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소통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㉔의 경우, 즉 도시의 거리나 카페, 광장과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관계일 경우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우연성'이다. 사후(事後)적으로 서사가 형성된다면 그만큼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지거나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것처럼 불안한 감정에 자주 휩싸이는 것은, 자신의 '내면', 즉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적인 면모를 부지불식간에 '(심리적으로는) 멀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타인'에게 내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현대 한국의 도시는 1960년대 압축적 근대화·산업화에 의해 30년도 채 안 되어, 즉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80%의 도시화율을 나타낼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특히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지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밀집하였으며 이에 요구된 여러 가지 기능들 또한 그에 준하는 속도로 밀집·증가하게 되었다.8) 이렇게 형성된 도시에는 다양한 직종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화폐를 매개로 상호 연결되어 이질적이면서도 이해타산적인 근대적 인간관계를 형성" 9)함으로써 도시의 '다공성(多孔性)'에 일조한다. 외부로는 무한히 열려 있게 되고 내부로는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도시의 도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우(遭遇)하고 다시 흩어지길 반복하지만,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공통성이라면 (사람을 수단화하는) '화폐 경제'뿐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반복은, 또 한편으로 생산·소비의 빠른 회전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서사의 형성은 계속적으로 지연, 결국 유사성과 이질성의 민감도 상승과 불신에 의한 불안감 상승을 야기한다.

5) 이때 '대상화'는 인간을 '사물화'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상화라기 보다, 자신과 동등한 능동적 주체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브루스 골드스타인, 『인지심리학』 도경수 외 역, 센케이저리닝 코리아, 2016, 64쪽 이하 참조.

7) 에슐리 몬티규, 『터칭』, 최로미 역, 글항아리, 2017, 49쪽 참조. 몬티규는 감각 자극이 종합적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뇌의 작동 방식 역시 그만큼 제한된다고 말한다.

8) 전종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개정 3판), 사회평론, 2018(초판: 2005), 369쪽.

9) 위의 책, 374쪽.

2. 메타적 글쓰기를 통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구축과 관계의 윤리학

신체의 물리적 가까움은 무목적적 모둠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인 인접은 구성원들 간에 보다 원활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공감과 감정이입(신체)을 통한 주체의 의미적 상호 위치 지움, 즉 서사를 형성하는 데 일차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㉞ 유형에 대해 논할 수 있다. ㉞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나,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사는(혹은 공통 목적으로 한 공간에 모인) 모둠 구성원의 관계 등이 해당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바,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사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움을 넘어 ‘함께 삶’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삶으로서 만들어진 지속적인 신체 매개적 인접은, 다른 이의 주체성 박탈—다른 ㉞, 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 10) 기형도는 살과 정념의 세계에 대해 “불안과 가능성의 세계”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내부’를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위험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능성)는 성립될 수 없다. 위험한 만큼 위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위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뺨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지평’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와 너는 서로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디까지나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승인하는 언어적 작용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문학적 글쓰기는 ‘수행’의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왔고, 실로 이러한 경향의 심화는 곧 윤리적 입장의 구축에 일조하기도 했다. 글쓰기를 수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글쓰기를 일종의 ‘세계의 또 다른 판본(version) 만들기’, 특히 (독자와 함께) 탐색과 발견을 위한 ‘여행’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이는 글쓰기를 다른 공간적 구성과 나란히 놓을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절대화와 타자의 대상화를 지연시키는 방향이 동반된다면 일종의 ‘문학-정치’의 국면을 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11) 즉 우리는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관계에서의)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사유 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정시는 이러한 서사적 공간 구축을 실현할 수 없다. 근대 이후 등장한 ‘서정시’는 ‘신체라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자아’라는, 절대화된 자아 개념으로 현실과의 불화를 옹호하는 글쓰기 양상이다. 특히 한국의 서정시를 말하자면, 현실과의 불화와 소외로부터 시작하여 ‘자연과의 동화’로 쉽게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정시는 철저하게 모더니티의, 도시적 삶의 산물이다. 그것은 현대 도시의 삶이 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치유’의 방법론으로 등장한 것이다. “서정은 만상(萬象)을 일인칭의 내면적 고도(高度)에 걸어두는 방식” 12)이라고 한 이장욱의 말은 이러한 서정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분명히 언어는 긴장을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위협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 자체를 규명하고, 그 의도를 언명할 수 있음”은, 13) 우리를 과도한

10) 정신분석학 임상의인 사이토 다마키는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저서를 통해, 모녀관계에서 신경증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아주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학대관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지나치게 간섭하는 관계, 일관성 모녀관계 등등. (중략) 딸을 지배하는 어머니, 바로 이것이 모든 패턴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학대관계와 일관성 모녀 같은 관계의 경우 서로 크게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관계건 어머니의 능동성과 딸의 수동성이라는 조합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구분은 실제 행동 패턴보다는 ‘어느 쪽이 컨트롤하는 입장인가’라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토는 모녀관계에서 어머니가 딸을 지배하는, 즉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일이 잘 발생하는 이유를, 특히 모녀관계에서 공감과 감정이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말하자면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차압하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그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선불리 ‘어머니 죽이기’를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사이토 다마키,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 김계원 역, 꿈꾼문고, 2017, 47쪽 이하 참조.

11) 문학의 언어가 정치적 언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문학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정치의 총명한 언어는 자신의 뜻 안 되는 어휘로써 모든 사태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려 한다. 반면 문학의 결탁된 언어는 그 결탁으로서 말의 가능성들을, 그리고 말을 통한 세계의 가능성

긴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언어의 기능을 최대치로 실현하는 서정시의 세계 만들기는 세계에 대한 근대인의 적절한 반응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 결코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글쓰기 수행은 균질화와 동화를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자아의 절대화, 상존하는 불안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과 사의 철저한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공간의 과도한 분리(배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일군의 시인들은 메타적인 글쓰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신체를 통한 공감과 감정이입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또 타자를 대상화하지도 않는 지속적인 언어적 수행, 다시 말해 유사성의 발견으로 인한 동질감 형성에도 이질성을 동시에 깨달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공유하는 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일찍이 로티(R. Rorty)가 말한 ‘아이러니스트(ironist)’의 면모를 보인다. 그가 말하는 아이러니스트는 ‘자신의 최종 어휘’, ‘최후의 믿음’까지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 방법으로 ‘문예비평(literary criticism)’을 수행하는 사람이다.¹⁴⁾ 문예비평은 ‘참신한’ 은유나 어휘의 창안과 관련되어 있다. 참신한 은유는 말해지는 사태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자를 끊임없이 스스로 재서술하게 함으로써 독단을 지양하는 새로운 자아만들기나 새로운 세계만들기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로티가 현대를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 중요하게 언급하는 아이러니스트의 일례로, 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최후의 믿음’까지도 대화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시화한 김언의 텍스트를 들 수 있다.

이 모습과 저 모습을 겹쳐놓으면 한 사람이 된다./ 저 모습과 다른 모습을 겹쳐놓아도 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겹치면서/ 나는 한 사람이다.// 나는 한 사람을 안다. 그의 모습을 알고/ 그의 다른 모습을 알고 그 또한 그라는 걸 알고/ 손을 내민다.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손을 내밀다가 멈추었다. 다른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다른 모습을 떠올리다가 마저 내밀었다. (중략) 나는 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고개를 가로챘다가// 미처 못 챙겨 온 나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잠들었다. 한 사람이 자고 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다./ 잠자는 모습도 그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자고 있다./ 나의 한평생 동반자라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 누워있다가 나갔다./ 내가 잠든 모습을 보고.

- 김언, 「모습」 부분¹⁵⁾

“모습”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일종의 겉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에 결부되어 있는 마음(혹은 의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 모습과 저 모습”이 겹쳐진, 말하자면 다층적 레이어(multiple layer)로 된 복합체(complex)로 존재한다. 이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투명해서 겹쳐보기가 가능한 유리판들이다. 그

을, 무한정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정과리, 「문학과 정치 사이의 어떻게 - 점점 더 정치의 시너가 되어가는 문학을 근심하며」 『숲』 제5호, 2017년 하권, 문학실험실, 2017, 62쪽.

12) 이장욱,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 다른 서정들」, 『창작과비평』, 2005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2005, 70쪽.

13) 파커 J.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글항아리, 2012, 145쪽.

14) 로티가 말하는 ‘문예비평’은 ‘문학비평’과는 다르다. 그가 말하는 문예비평은 “하나의 언어활동에 대해 그것이 지닌 실용주의적인 현금가치, 특히 비유적인 파워의 측면과 그것에 연관된 것들을 다루는 하나의 장르”라고 평가된다. 김동식, 『로티의 신실용주의』, 철학과현실사, 1994, 395쪽.

15) 김언, 『한 문장』, 문학과지성사, 2018, 64~65쪽.

것은 특정한 위치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그림이지만, 서로 다른 그림들이 겹쳐져서 그렇게 하나가 된 그림이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곧 ‘여러 사람’이고, 그 ‘여럿’은 다시 ‘하나’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시는 일단의 ‘진실’을 전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누구도 몇 개의 문장으로, 몇 개의 이미지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상존해있다. 이것이 곧 몸과 몸을 둘러싼 진실이며, 이를 끊임없이 다시 읽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접을 통한 감정이입과 공감 등은 관계 맺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제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윤리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태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메타적인 언어적 작용이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때 이른바 서사가 창안되고 ‘함께 삶’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동식(1994) 『로티의 신실용주의』 철학과현실사.
- 김언(2018) 『한 문장』 문학과지성사.
- 박준상(2015) 『떨림과 열림 - 몸·음악·언어에 대한 시론』 자음과 모음.
- 박준상(2019) 『인터넷 문화와 타인과의 관계』, 『초개인화시대, 가능한 공동체와 한국 비평담의 성찰』 2019년도 한국비평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브루스 골드스 타인(2016) 『인지심리학』 도경수 외 역, 세계이지러닝코리아.
- 사이토 다마키(2017) 『엄마는 딸의 인생을 지배한다』 김재원 역, 꿈꾼문고.
- 애슐리 몬터규(2017) 『터칭』 최로미 역, 글항아리.
- 이장욱(2005)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 다른 서정들』 창작과비평, 2005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 전종한 외(2018) 『인문지리학의 시선』 (개정 3판), 사회평론, 2018(초판: 2005).
- 정과리(2017) 『문학과 정치 사이의 어떻게 - 점점 더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는 문학을 근심하며』, 『숲』 제5호, 2017년 하권, 문학실험실.
- 조정환(2015) 『예술인간의 탄생』 갈무리.
-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글항아리.

로힌턴 미스트리의 『가족 문제』에 나타난 인도 종파주의와 공동체 문제

김은영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I. 시작하며

국가, 공동체,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온 인도계 캐나다 작가, 로힌턴 미스트리(Rohinton Mistry, 1952~)는 캐나다라는 공간에서 쓴 인도의 이야기로 특별한 인도계 디아스포라 작가라고 평가받는다. 미스트리가 특별한 것은 바로 캐나다 시민권을 지닌 디아스포라 작가이면서도 언제나 그의 작품은 인도 뭍베이(Bombay, 현재 뭍바이(Mumbai)로 변경됨)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차, 크리켓 경기장, 극장, 그리고 도로명 등 실제 뭍베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미스트리의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그가 인도 내 소수 종교 공동체인 파르시(the Parsi) 조로아스터(Zoroaster)교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소위 인도의 유대인이라 불리는 파르시는 8세기에 신흥 이슬람교도에 쫓겨나 페르시아의 파르시를 거쳐 다시 인도 뭍베이로 이주해 정착한 이란(Iran)계 조로아스터교도 일부를 가리키며, 파르시는 이들에 대한 유럽인의 호칭이다. 미스트리의 작품 곳곳에는 힌두교도가 인구의 팔십 퍼센트를 넘는 인도 내에서 파르시 조로아스터교도라는 극소수 종교집단의 일원으로서 겪었던 디아스포라와, 자신이 캐나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겪은 인도계 작가라는 이중의 디아스포라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다. 때문에 그의 소설은 독립 후 인도라는 국가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여러 종교가 난립해 있는 독립 후 인도 내에서 소수 공동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가에 관한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들 중 『가족 문제』는 1990년대 인도 뭍베이를 배경으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6개월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설의 에필로그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5년 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미스트리는 자칫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풍경 속에서 '표준'가족이 아닌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의붓아버지와 미혼의 자녀들의 동거, 노년, 돌봄과 부양, 안전 등의 주요한 가족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가족 문제들은 모두 국가와 공동체 문제의 파장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도의 세속주의가 변질된 종파주의로 인해 위협받는 파르시 공동체가 다시 가족과

* 이 연구는 『영어영문학 연구』 46권 1호에 게재된 동명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개인의 안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추적하면서, 국가의 종파주의가 빚어낸 배타적 공동체의 생존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가족을 둘러싼 인도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

소설 『가족 문제』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후반 남성인 나리만 바킬(Nariman Vakeel)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골절상을 당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리만은 의붓 자녀인 쿠미(Coomy), 딸(Jal)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이 나리만을 돌보기를 거부함에 따라 그의 친딸인 록사나(Roxana)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일어난 약 6개월간의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서 『가족 문제』의 공간은 두 개로 나뉜다. 소설의 처음에서는 나리만의 집인 “행복의 성”(Chateau Felicity)(FM 6)¹⁾과 록사나의 집인 “즐거운 빌라”(Pleasant Villa)(FM 40)로 공간이 양분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나리만의 서사가 주 플롯에서 물러나면서 “행복의 성” 또한 부차적인 장소로 등장 횟수가 감소한다. 대신 “즐거운 빌라”와 록사나의 남편인 예자드 체노이(Yezad Chenoy)의 직장인 “뭄바이 스포츠용품점”(Bombay Sporting Goods Emporium)(FM 80)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주 플롯으로 등장한다. 미스트리는 소설 속 공간의 분할과 이동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다시 외부 공간인 뭄바이 거리로 연결시키면서 인도의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 또는 힌두 근본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소설의 배경은 인도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1992년 바브리 모스크(Babri Masjid) 사건의 후폭풍이 불고 있는 뭄바이이다. 바브리 모스크 사건은 인도 내의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의 뿌리 깊은 종파주의(communalism)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다. 인도 역사의 맥락에서 배타적 공동체주의를 뜻하는 종파주의란 인도가 택한 세속주의(secularism)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필원에 따르면 인도는 “무수한 종교가 난립하는 종교 백화점”으로 “인간이 자이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외계 대상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낸 모든 형태의 종교가 현존하는 나라”(9)이다. 인도 내의 다양한 종교는 인도의 세속주의 근간이 되었다. 여기서 세속주의란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을 들어 국가와 종교가 서로 개입하지 않고,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인도의 세속주의와 종파주의가 함께 반영된 흥미로운 공간은 뭄바이에 시내에 위치한 예자드의 직장이다. 예자드의 직장에서는 인도의 종교 상황을 보여주듯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세 인물이 교차하고 있다. 힌두교도인 사장 카푸르(Mr. Kapur)와 파르시 공동체의 조로아스터교도인 매니저 예자드, 그리고 무슬림인 사환 후사인(Husain)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위계만으로도 이미 인도 사회의 종교적 서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장인 카푸르는 1947년 영국에서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던 당시 편잡(Punjab)에서 무슬림 세력에 의해 추방당해 뭄바이로 이주한 인물이다. 그러나 카푸르는 이런 과거 역사의 갈등은 개의치 않는다. 파루이(Dipankar Parui)는 카푸르

1) Rohinton Mistry, *Family Matters*. (New York: Vintage, 2002). 이하 작품 인용 시 괄호 안에 FM으로 약어 표시하고 쪽수를 표기함.

에 대해 “세속주의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봄베이라는 도시를 그의 종교로 승격시키며” 힌두교도이면서도 가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는 등, “인도의 세속주의를 몸소 구현하고 있는” 인물로 분석한다. 그러나 카푸르는 봄베이에 사는 “1,4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슬럼가에 살며 짐승도 살지 못할 곳에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살아가는”(FM 136)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높은 카스트의 힌두교도인 그가 이상화하는 봄베이의 모습은 사람들의 실제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인도의 세속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작가는 시브 세나(Shiv Sena)²⁾ 당원들의 횡포로부터 봄베이를 구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의 즉흥적인 선언과 변덕스러운 포기 선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도덕적으로 영향을 받는 예자드와 예자드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현실과 유리된 인도 세속주의의 이면에 대해 시사한다. 결국 시브 세나 당원들에게 살해당하는 카푸르의 운명은 인도 세속주의가 처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작가 미스트리가 한 공간 안에 종교가 다른 세 명을 배치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카푸르와 봄베이가 지닌 포용과 화해의 몸짓을 드러내려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공간을 통해 서술되는 카푸르와 후사인, 두 인물이 상징하는 인도의 종파주의 역사와 그 대응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무슬림 세력에 의해 고향에서 추방당한 카푸르와는 반대로 무슬림인 후사인은 1992년 바브리 모스크 폭동에서 힌두교도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희생자이다. 바브리 모스크 폭동은 아요디아(Ayodhya) 지역의 바브리 모스크가 힌두교의 신인 람(Ram, Rama)의 탄생지에 세웠던 람 사원을 허물고 건설되었다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힌두 민족주의와 무슬림 민족주의로 분리 전개된 인도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인도 종파주의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후 힌두교도들에게는 힌두 문화만이 인도의 지배 문화라고 주장하는 힌두뜨바(Hindutva)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힌두뜨바는 힌두 민족, 힌두주의라는 뜻으로 1980년대부터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인도 대중에게 주입해 온 일종의 슬로건이었다. 그리고 힌두뜨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람의 탄생지라 간주되는 아요디아가 힌두교의 성지로, 바브리 모스크가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결국 1992년 12월 6일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바브리 모스크를 파괴하기에 이르렀고, 이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자 인도 전역의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과 폭력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표면적으로나마 인도 정부가 표방해오던 세속주의 원칙을 완전히 폐기해버린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2,000여 명에 이른다. 『가족 문제』에서는 후사인과 후사인의 고통에 대한 예자드와 카푸르의 반응을 통해 바브리 모스크 폭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자드는 후사인 때문에 짜증이 날 때마다 이 사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앵툼 힐의 불타는 집단주택지, 사람들에게도 불을 지르는 청부 폭력배들 ... 후사인과 그의 무슬림 이웃들은 그들의 집단주택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았을 때, 부인과 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는데 ... 그때 네 개의 불타는 형상이 건물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들의 연기나는 손들은 불길을 뿌리쳤지만 ... 청부 폭력배들은 후

2) 봄베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힌두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폭력 행위를 일삼는 급진적 보수주의, 극우 세력으로 “시브 세나”는 “취바신의 군대”라는 뜻이다.

사인 가족들 위로 더 많은 등유를 뿌렸다... (FM 124)

“주인님, 이 폭동에서 경찰은 갱단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무슬림 모할라에서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어요. 집은 불타고 이웃들은 물을 끼얹어 밖으로 나왔죠. 경찰들이요? 사격훈련을 하는 것처럼 총알을 발사했죠. 이 법의 수호자들이 모두를 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가여운 아내와 아이들 ... 심지어 저는 그들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부끄러운 일이네.” 카푸르가 말했다 ...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전히 정의란 존재하지 않으니. 시브 세나가 경찰을 오염시켰어. 그리고 이제 시브 세나가 정부가 되어버렸어.” (FM 124)

소설 속에서 바브리 모스크 학살 장면은 처음 예자드의 상상에서 서술되었다가, 직접적인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후사인의 목소리로, 그리고 다시 카푸르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작가 미스트리는 동일한 공간의 세 명의 목소리를 통해 바브리 모스크 학살의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종파를 떠나 모두가 동의하는 시브 세나와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비인도적인 잔인성에 대해 고발한다. 특히 작가가 학살 장면에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집단주거지의 공동체를 등장시킨 것은 국가의 종파주의의 자장 안에 들어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교묘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후사인의 증언과 카푸르의 말에서 드러나듯 힌두 민족주의자들 혹은 힌두 근본주의 세력들은 힌두뜨바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한다.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과 손을 잡고 시브 세나를 앞세워 인도 봄베이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요디아 바브리 모스크 사태를 중심으로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갈등을 연구한 백좌흠 외 4명의 연구자들은 바브리 모스크 학살이야말로 힌두 근본주의 세력과 연합한 인도국민당이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장한 폭동이라고 지적한다(76).

미스트리가 시브 세나 세력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는 이유는 시브 세나가 “인도라는 국가와 힌두교가 동일하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종교 집단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로써 배제”(Pesso-Miquel 102)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즉 『가족 문제』에서 미스트리는 후사인의 경우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과 종파주의적 폭력의 가해자 사이의 공모를 극적으로 묘사한다. 소설 내의 이러한 분위기는 왜 소수 집단들이 위협당하는 느낌을 받는지,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강한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왜 결속을 굳히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는 소설의 마지막에 조로아스터교 광신도로 백팔십도 돌변한 예자드의 태도를 이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Pesso-Miquel 103). 소수 공동체에 대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종파주의적 횡포는 다시 소수 공동체의 종파주의적 배타성으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III. 파르시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 남긴 가족 문제

『가족 문제』의 첫 장에서는 이 소설에 등장할 문제들의 목록이 나열된다. 소설의 처음에 등장하는 나리만 바킬은 저녁 산책을 나서려는 참이다. 몸이 불편한 나리만의 외출을 만류하는 아들 잘과 딸 쿠미의 모습은 보통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어 등장하는 나리만을 가리키는 단어 “의붓아버지”(stepfather)(FM 4)는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의붓아버지”라는 단어를 의식하는 순간, 독자들은 쿠미와 잘의 나리만에게 건네는 날이 선 일련의 말들은 평범한 부녀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인식한다. 외출을 반대하는 두 남매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통제하고 내 인생을 망쳤지, 그 덕택에 너희 엄마와 결혼하게 됐고 내 중년 시절을 망쳤지. 그런데 늙으니 너희들이 날 괴롭히고 싶어 하는구나”(FM 8)라는 나리만의 말에 쿠미는 “아버지가 우리 엄마, 나, 그리고 잘의 인생을 망쳤죠. 우리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라면 한마디라도 참지 않겠어요”(FM 8)라고 응수한다. 쿠미의 말에 이어 연속적으로 페이지에 걸쳐 등장하는 “이등(second class) 자식”(FM 9), “새로운 아빠”(New Pappa)(FM 10), “동복 또는 의붓”(half or step)(FM 11) 등의 단어들은 『가족 문제』에서 전개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암시한다.

이어 소설은 생일을 맞은 나리만의 회상을 통해 갈등의 출발점으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나리만의 회상 속에서 그의 부모와 이웃들은, 가톨릭교도이면서 고아 지방 출신인 (Goan) 루시 브라간자(Lucy Braganza)와 11년간 교제하던 나리만이 루시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자 만세를 부르기까지 한다. 그리고 사별한 쿠미와 잘의 엄마인 야스민 콘트랙터(Yasmin Contractor)와의 중매결혼을 추진한다. 나리만이 속한 공동체는 인도 내 소수 커뮤니티인 파르시 공동체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순혈주의를 고수하고 다른 종교 집단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매우 배타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나리만의 아버지는 파르시인 어머니와 파르시가 아닌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입회식을 해준 사제의 이야기에 대해 “3천 년 전통의 유서 깊은 역사에서 많은 좌절을 겪고도 살아남은 조로아스터교를 파괴하는 사람은 바로 변절한 사제와 같은 사람”(FM 113)이라는 비난의 글을 신문의 독자투고란에 게재한다. 그리고 자신의 글과 같은 논리로 아들 나리만과 루시의 관계를 반대한다. 급기야 “[조로아스터교의] 생존의 주축이자 근간인 유일무이한 고대 페르시아 공동체의 순수 혈통이 손상되고 있음”(FM 113)을 우려하면서 다른 종교 집단과의 결혼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나리만의 아버지는, “순수 혈통을 미친 듯이 추구함에 있어 종교가 다른 공동체와의 혼인에서 생긴 배우자나 자식들을 제거하는데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광적인 인종주의자”(FM 114)로 고발당하기에 이른다.

『선한 파르시』(The Good Parsi)의 저자 러만(T. M. Luhrmann)은 파르시의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의 원인을 식민지 시절과 독립 이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소수 공동체의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파르시는 영국의 스타일, 교육, 그리고 정치적 지향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인도 내 디아스포라 공동체

였던 그들의 정체성은 언제나 지배 논리와 협상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파르시들은 영국이 표방하는 자기 개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영국 식민 지배자들이 식민지 민중에 비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듯, 파르시 또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처럼 선한 파르시란 힌두 대중보다 더 정직하고, 더 순수하고, 더 자비롭고, 더 진보적이며, 더 이성적이고, 더 남성적이다.”(15-16)라고 스스로를 묘사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로아스터교의 성서와 연결되며 파르시 공동체의 실천 윤리로서 “진실, 순결, 그리고 선함이라는 이음새가 없는 직물을 만들어냈다.”(Luhmann 100). 아울러 19세기 초반 파르시 공동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파르시 “공동체 의회”(Panchayet)는 공동체 생활의 규제를 통해 파르시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정의내렸으며 여기에는 결혼, 젠더의 의무, 그리고 종교적 의식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Palsetia 93). 그러나 맥나마라(Roger McNamara)에 따르면 20세기에 이르러 인도 민족주의는 식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이 그치지 않고, 식민주의의 가치들을 힌두교 중산계급의 가치로 대치했다. 이것은 파르시 공동체를 위시한 소수 공동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파르시들은 “그들이 새롭게 형성된 인도의 지배문화를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경우, 과거 자신들을 정의 내렸던 것과는 반대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60). 결국 파르시들의 이러한 위기감은 정체성 확보에 있어 정직과 순결주의 결혼이라는 퇴행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리만이 도착한 이후 “즐거운 빌라”는 소설의 주 무대로 부상한다. 예민하지 않은 여성 독자들이라도 “즐거운 빌라”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헌신적인 록사나의 모습이다. 집 안의 모든 결정은 가장인 남편 예자드에게 달려있음을 차치하고라도, 록사나는 예자드의 기분이나 태도 등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록사나의 모습에서 21세기 독자들은 영국 빅토리아조에서 이상화했던 ‘집안의 천사’의 전형을 확인한다. 자라야만(Uma Jarayaman)은 록사나는 가족과 사회에 있어 파르시 여성의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관련된 몇몇 쟁점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여성들은 각자 인종, 민족, 그리고 젠더라는 측면에서 이동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젠더 수행을 위한 전략을 짜야 했는데(258), 파르시 공동체의 록사나는 ‘집안의 천사’ 역할을 선택한 것이다. 아울러 자라야만은 식민지 하에서 여성 해방을 주장하던 개혁가들도 독립 후 인도에서는 여성 해방 대신 오히려 여성을 가정 공간에 제한하려 했는데, 이는 유럽중심주의 담론에 대항해 인도의 영성의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가 밑바탕에 깔려있었다고 주장한다(258). 민족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갈등의 역사에서 언제나 희생되는 것은 여성과 여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인도 내 주변화된 소수 공동체에서 여성이 주변화되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 ‘가정의 수호자’인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공간은 바로 가족 내부라는 아이러니가 뒤따른다. 그러나 쿠미가 나리만을 돌봄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며 울음을 터뜨릴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쿠미의 죽음으로 이어질 때, 또는 상징적으로 록사나의 부업에서 압력밥솥이 폭발할 때 우리는 여성이 해결해야 하는 가정 내의 노동

에 다시 헌신을 강요하는 돌봄 노동이 더해졌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

『가족 문제』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족의 외부 공간에는 힌두 민족주의가, 사적 영역인 가족 안에서는 파르시 근본주의가 평행선을 그리며(McNamara 57) 배치된다. 그러나 힘의 저울은 국가로 기울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족은 국가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되비추는 미니어처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예자드는 부양의 의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불법 복권인 마트카(Matka)에 돈을 걸게 된다. 마트카는 “시브 세나 조직의 자금줄”(FM 179)임과 동시에, “테러리스트들이 주식 시장을 폭파시킬 때 쓰는 플라스틱 폭탄”(FM 179)을 만드는 돈의 원천이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게도 마트카는 “국가의 적들은 물론이고 국가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정치 단체 역시 같은 돈줄에 의지하고 있다는”(FM 179)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원칙없이 뒤섞인 봄베이의 부패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후반부에는 예자드가 꾸민 거짓 연극의 여파로 카푸르가 죽음을 맞이한다. 순혈주의 결혼과 정직함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는 파르시 공동체의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예자드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패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 있어. 이 나라는 정직한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지”(FM 28)라고 했던 그의 말을 반추하게 된다.

제항기르가 화자로 등장해 전하는 에필로그의 맨 처음은 파르시가 아닌 여자 친구를 사귀는 아들 무라드와 예자드의 논쟁으로 시작된다. 이는 독자들에게 과거 나리만과 루시를 반대하던 나리만의 부모가 순혈주의 결혼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을 재생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평행이론의 예를 보여주듯 예자드는 19세기 당시 다른 종교 공동체 여성과 결혼한 파르시 남성이 파르시 공동체에서 파문당한 사건을 언급하기까지 한다. 페르시아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혼혈 결혼은 그 전통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자드의 말에, 무라드는 “히틀러도 순혈주의에 대한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FM 419)며 예자드를 비난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묘사된 무라드의 논쟁과 제항기르의 서술은 두 인물이 파르시 공동체의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상징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hautoo-Dewnarain 102). 소설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항기르는 예자드를 보며 “내 진짜 아버지는 사라지고, 쉽 없이 기도만 하는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FM 434)고 생각한다. 미스트리는 이제 경제적 안정은 찾았지만, 광신자가 된 예자드가 느끼는 우울함과 “즐거운 빌라”에서 살던 가족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제항기르의 독백을 통해 국가가 공동체를 그리고 공동체가 가족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또 젊은 시절의 나리만, 젊은 예자드, 그리고 무라드로 이어지는 갈등의 반복은 소설의 직접적인 서사를 넘어 배타적인 소수 공동체의 운명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Bhautoo-Dewnarain 103). 미스트리가 에필로그의 시점을 5년 후, 2000년대로 설정한 것도 언급할 만하다.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여전히 종파주의는 사람들의 일상 삶을 구성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으며

로헨턴 미스트리의 『가족 문제』는 국가의 폭력적인 종파주의가 공동체를 위협할 때 그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도미노 조각은 배타적인 공동체의 순혈주의를 거쳐 생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을 쓰러뜨리면서 다시 처음 조각이 쓰러진 자리로 돌아간다. 작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쿠미와 카푸르의 경우를 통해 모든 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종의 죽음을 다음에 오는 진부한 화해의 장면을 마련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공간과 인물을 다시 문제의 시작점에 돌려놓음으로써 여전히 진행 중인, 끝나지 않은 가족의 문제를 다시 상징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스트리가 종파주의에 대한 회의로만 소설을 끝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필로그에는 변모한 예자드의 모습과 더불어 야스민과 루시가 함께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야스민이 했던 마지막 대사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을까”(FM 426)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를 통해 미스트리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공동체와 종파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어른이 되면 체노이가와 바킬가의 역사라 불리는 크고 두꺼운 책을 쓰겠다”(FM 41)던 제항기르의 눈을 통해 소설을 맺으면서 미래의 역사를 기록할 다음 세대가 종파주의와 공동체에게 보내는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예고한다.

미스트리는 『가족 문제』에 관한 인터뷰에서 “안전한 안식처”(Wigston)라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형용사인가? 혹시 우리만을 향해있지는 않는가? 한국의 독자들은 『가족 문제』의 이야기를 우리와는 매우 거리가 먼 나라의, 특별한 한 공동체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이며, 더구나 한국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전통과 식민지의 왜곡, 압축적 근대화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온 그릇이 아니던가. 순혈주의를 기저에 깔 가족주의는 언제나 그 그릇에 담긴 단골 메뉴였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족 문제』의 이야기는 한국 독자들에게 반면교사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문화사회가 된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는 순혈주의의 배타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냉정한 비판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고흥근(2003) 『인도종파주의의 성격(1)』 남아시아연구 8(2), 1-35.
-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김찬환, 이재숙(2003) 『힌두-무슬림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 분석: 아요디아 사태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8(2), 53-94.
- 이필원(2008) 『인도의 종교별 분포 현황과 종교 분쟁 고찰』 아시아연구, 2, 9-26.
- Bhautoo-Dewnarain, Nandini.(2007) *Rohinton Mistry: An Introduction*. New Delhi: Foundation Books.
- Jayaraman, Uma.(2014) “Boundary- Marking in the Diaspora: An Analysis of Women Characters in Rohinton Mistry’s *Family Matters*.” *Tracing the New Indian Diaspora* Dwived, Om Prakash. ed. Boston: Brill/Rodopi, 253-70.
- Luhrmann, T. M.(1996) *The Good Parsi: The Fate of a Colonial Elite in a Postcolonial Society*. Cambridge: Harvard UP.
- McNamara, Roger.(2017) “Developing ‘A Fine Balance’: Secularism, Religion, and Minority Politics in Rohinton Mistry’s *Family Matters*.” *South Asia: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40(1), 54-70.
- Mistry, Rohinton.(2002) *Family Matters*. New York: Vintage.
- Morey, Peter.(2004) *Rohinton Mistry*. Manchester: Manchester UP.
- Palsetia, Jesse S.(2001) *The Parsis of India: Preservation of Identity in Bombay City*. Boston: Brill.
- Parui, Dipankar.(2015) “Rohinton Mistry’s *Family Matters*: A Journey towards Thematic Exploration.” *The Criterion: An International Journal in English* 6(1), n. pag. Web. 5 Nov 2019.
- Pessa-Miquel, Catherine.(2007) “*From Enlightenment to the Prison of Light: Reverting to Parsi Fundamentalism in Rohinton Mistry’s Family Matters*.” *Fundamentalism and Literature*. Pessa-Miquel, Catherine and Stierstorfer, Klaus. ed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01-21.
- Wigston, Nancy.(2002) “Same World but Different: Interview with Rohinton Mistry.” *Book in Canada*. 31(4): n. pag. Web.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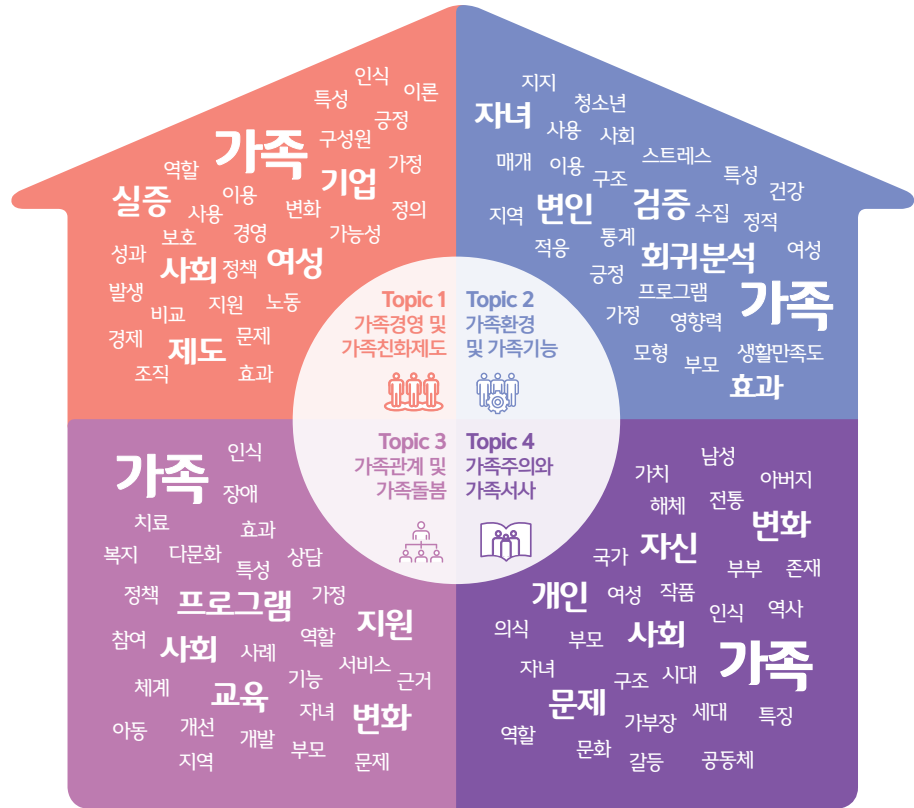
- <인포그래픽> 토픽모델링으로 본 한국가족 연구 지형과 변화
- <연구> 토픽모델링으로 본 2000년대 이후 한국가족 연구 지형과 변화 (추주희)

* 「연구동향」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초사자료, 통계 자료를 활용 및 재구성하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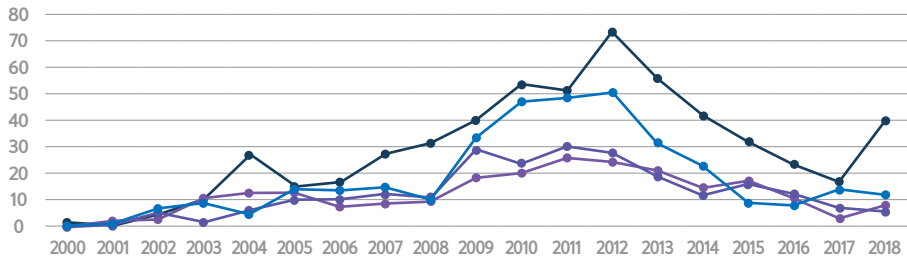
2000년 이후 국내 가족 연구에서
토픽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각 토픽별 상위 빈출 단어 클라우드(TF 기준)

한국가족연구의 주제별 토픽영역과 변화 추이: 토픽분석 결과



2000년 이후 토픽별
연구주제 변화추이는?

● Topic 1 ● Topic 2
● Topic 3 ● Topic 4



2000년 이후 가족관련
연구주제 상위키워드 도출

토픽별 가족 관련 국내 학술지
초록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1. 후계	2. 창업	3. 경영	4. 승계	5. 민법
6. 중혼	7. 조세회피	8. 종업원	9. 특례법	10. 주주
11. 매출	12. 인증	13. 성매매	14. 중소	15. 재산
16. 기업승계	17. 회고경영자	18. 북한	19. 근로자	20. 지배구조



1. 청소년	2. 변인	3. 탄력성	4. 자아존중감	5. 우울
6. 학교	7. 정신건강	8. 유아	9. 진로	10. 학교생활
11. 적응도	12. 회귀분석	13. 상관분석	14. 비행	15. 남학생
16. 방정식	17. 보호자	18. 자살	19. 상관	20. 교사



1. 미술관	2. 특수교육	3. 유아	4. 센터	5. 두통
6. 교사	7. 청소년	8. 담배	9. 중재	10. 치매
11. 간호	12. 학생	13. 심실	14. 실험군	15. 자폐
16. 도벽	17. 장애인	18. 복지관	19. 효율	20. 교육과정



1. 영화	2. 소설	3. 욕망	4. 서사	5. 자본주의
6. 전쟁	7. 작가	8. 이데올로기	9. 상처	10. 모성
11. 조선	12. 환상	13. 작품	14. 유교	15. 주인공
16. 가문	17. 재현	18. 영웅	19. 그녀	20. 근대화

한국 가족연구 동향과 변화*

2000년대 이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추주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서론

가족변화는 한국사회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화와 맞물려서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족을 둘러싼 혹은 가족 내부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가족이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현상”(Barrett & McIntosh, 1991)이기도 했다. 이는 가족이 단편적이거나 미시적인, 혹은 거시적인 ‘확증’을 통해 단언하기 어려운 것임을 말해준다.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더라도 가족의 역할, 기능, 형태, 의미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주요 사회패러다임, 무엇보다 국가와 가족을 잇는 가교로서 항상 근대의 복합적이고 혼동스러운 ‘담론의 경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최유정, 2010: 17), 1998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며 가족 담론은 해방의 담론이기 보다는 정책담론으로 축소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했다(김혜경, 2019: 218).

다만, 시공간상의 제한과 한계를 뛰어 넘어 ‘가족’에 대한 명명과 제도가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것 일지라도, ‘가족’을 둘러싼 노선상의 투쟁과 ‘미래의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질문, 진단은 계속 되어 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가족연구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전통적 기능주의 관점의 가족연구를 비판하고 사회비판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김혜경, 2019: 218). 그러나 가족 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가족연구의 주제와 관

* 이 연구는 『한국가족관계학회』 24권 4호에 게재된 “토픽모델링으로 본 한국 가족연구 동향 분석”의 일부는 요약한 글임을 밝힙니다.

점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지 않으며, 가족 담론 내에서 형성된 주요 개념들과 도구가 한국사회의 가족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혹은 미래의 한국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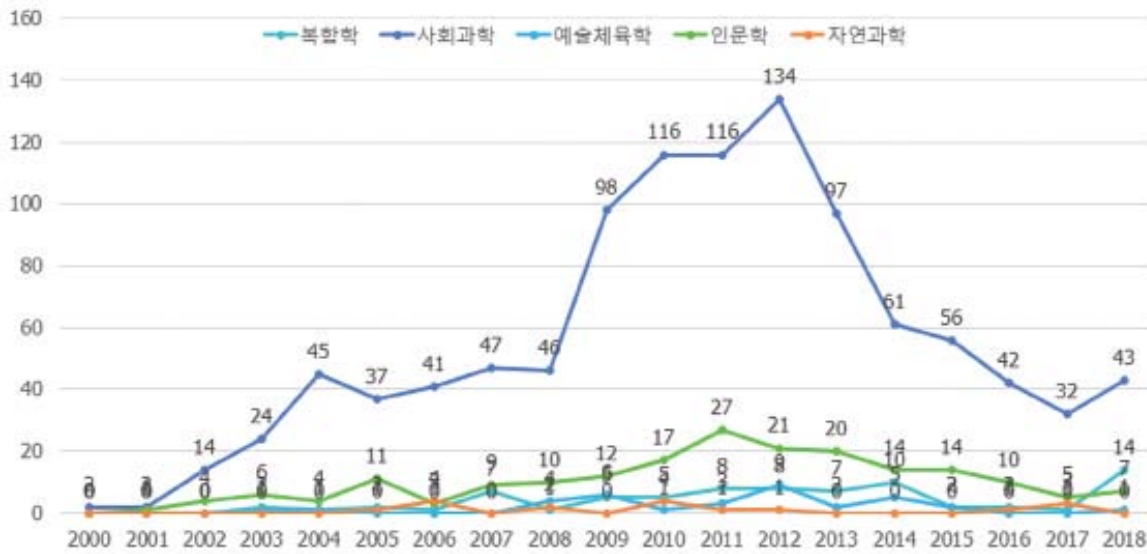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비판과정에서 그동안의 가족연구 경향과 의미는 가족 담론에 대한 비판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도 규명되지도 못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저출산, 다양화, 다문화, 탈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족연구 지평 및 가족 정책의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성찰과 평가는 도입된 정책 효과 등의 측면에서 주로 이뤄졌을 뿐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이 연구는 적어도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문제를 진단하는 혹은 가족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던 2000년대 이후 가족연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먼저 답하지 않고서는 불안정하고 변화되고만 있는 '가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빅데이터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학술분야에서의 가족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의 시기별·학문분야별·토픽별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가족연구의 지형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설계 및 방법

연구물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합논문검색(RISS)을 활용하였으며, 학술논문의 검색어는 상세검색 내 완전일치 검색방법으로 논문제목에 "가족"이 들어간 KCI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로 제한하여 서지정보를 추출하였다.¹⁾ 학술논문의 서지정보는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학회명, 발행연도, 주제어, 초록어"로 총 368개 학술지의 1380편이다. 학문분야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활용하여 분류하였으며, 각 분야의 주제어 추출과정에서 공학은 2006년도와 2011년도에만 논문이 선정되었다. 의약학 역시 2006년도에만 1편이 추출되어 공학과 의약학 논문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인문학, 자연과학에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1,376편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국문초록을 수집하였다. 논문 1,376개의 초록과 주제어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및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논문의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은 Excel을 활용하였으며,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시기로 하고, 종속변수는 각 연구 토픽의 시기별 비중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토픽별로 상위 30개 단어를 추출했다.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는 Python의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 Gensim(v3.8.0)을 이용하여 단순한 키워드 단어 출현 빈도수(TF, Term Frequency)와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수(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활용하였다.

1) 한국의 근현대 이후의 가족연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검토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활용가능한 학술검색엔진사이트 내에서 논문의 서지 정보사항이 한국어 언어형태로 동일하게 제시된 논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2000년대 이후부터 최신의 연구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까지 연구기간은 제한하였다.

<Figure 1> 학문분야별·연도별 대상 학술지 논문 편수 현황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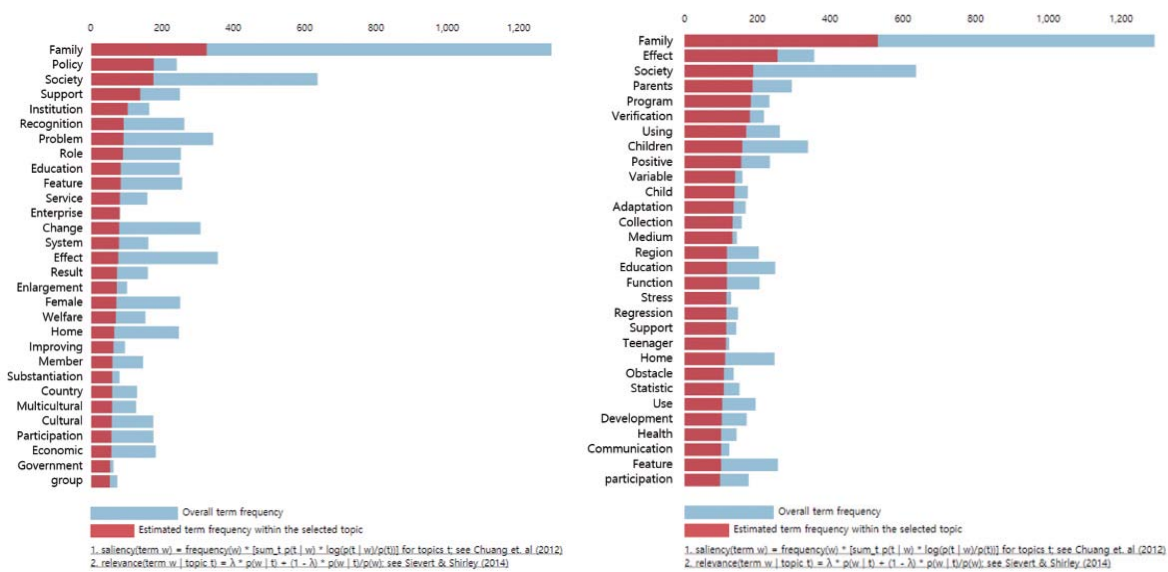
1. 단어출현 빈도분석

LDA에서 토픽의 수는 연구자가 직접 지정해야 하는데, 최적의 토픽수를 산출하는 통계적 해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연구 질문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토픽의 수를 4개~7개까지 늘려가면서 판단하였다. 이때 주제의 해석가능성, 각 토픽별 밀도와 크기값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토픽을 결정하였다. 전체 토픽에서 사회과학의 비중은 토픽 1과 토픽 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학은 토픽 4에서, 자연과학과 예술체육학은 토픽 2에서, 복합학은 전체 토픽에서 나타났지만,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Table 1).

Table 1.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academic field by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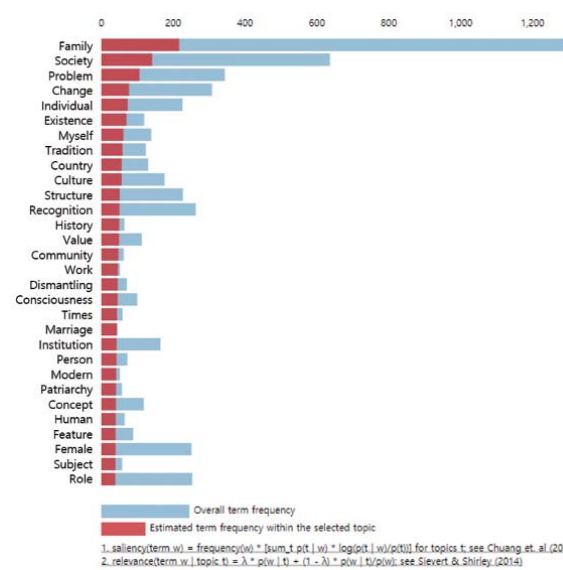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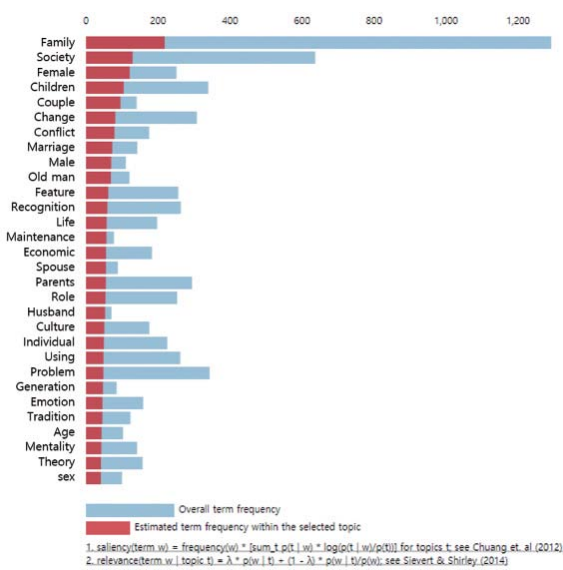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Social Science	Arts&Physical Education	Humanities	Natural Science	sum
Topic 1	19(5.4%)	301(86%)	3(0.9%)	23(6.6%)	4(1.1%)	350(100%)
Topic 2	26(4.6%)	487(86.8%)	22(3.9%)	14(2.5%)	12(2.1%)	561(100%)
Topic 3	19(8.2%)	175(75.1%)	1(0.4%)	37(15.9%)	1(0.4%)	233(100%)
Topic 4	12(5.2%)	90(38.8%)	9(3.9%)	121(52.2%)	0(0%)	232(100%)

Figure 2. Top 30 words for each Topic (Based on the TF)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1 (25.6% of tokens)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2 (35.7% of tokens)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3 (19.4% of tokens)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4 (19.4% of tokens)

전체 토픽에서 ‘가족’, ‘사회’, ‘문제’, ‘변화’와 같은 단어의 출현빈도(TF)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토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을 반영하기 보다는 연구 초록에 반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토픽별 상위 빈출 단어 30개는 다음 Figure 3에 정리했다.

학술지의 토픽별 빈도분석 결과만으로 각 토픽명을 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잠재 토픽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투어의 중요도를 감소시키고 단어의 가중치를 반영한 상위 빈출 단어(TF-IDF) 5개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²⁾

Table 2. The Top 5 Words in the Abstract of the Academic Journal Related to the Family(by TTF)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4
1	후계	청소년	미술관	영화
2	창업	변인	특수교육	소설
3	경영	탄력성	유아	육망
4	승계	자아존중감	센터	서사
5	민법	우울	두통	자본주의

토픽에 배치된 단어들에 가중치를 제시하여 보다 중요한 주제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토픽명을 최종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문서*토픽)행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특정 문서가 특정토픽을 반영할 확률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토픽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각 토픽별 분류된 문서들에서 토픽비중이 높은 논문을 5편과 동시에 다른 토픽과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논문 5편을 선별하여 각 토픽별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토픽에 포함될 확률은 .99로 1에 수렴하는 값을 갖는다.

토픽 1로 분류된 350개의 문서 중 92개의 문서는 토픽 1에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258개의 문서는 다른 토픽들과 중복되지만 토픽 1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토픽 1로 분류된 문서들의 논문명은 주로 “가족기업의 경영승계”, “가족기업의 경영 특성 및 성과” 등이 주로 포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및 제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토픽 1을 ‘기업 경영과 가족친화제도’³⁾ 로 분류하였다.

전체 문서 중 561개가 토픽 2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 토픽 2로만 분류될 확률이 높은 문서는 154개였다. 가족환경을 주요 변인으로 한 실증적 연구들로서 가족 기능 약화가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기능향상 및 강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토픽 2를 ‘가족환경 및 가족기능’⁴⁾ 으로 분류하였다.

2) 보다 자세한 상위 빈출단어는 이번 호 인포그래픽을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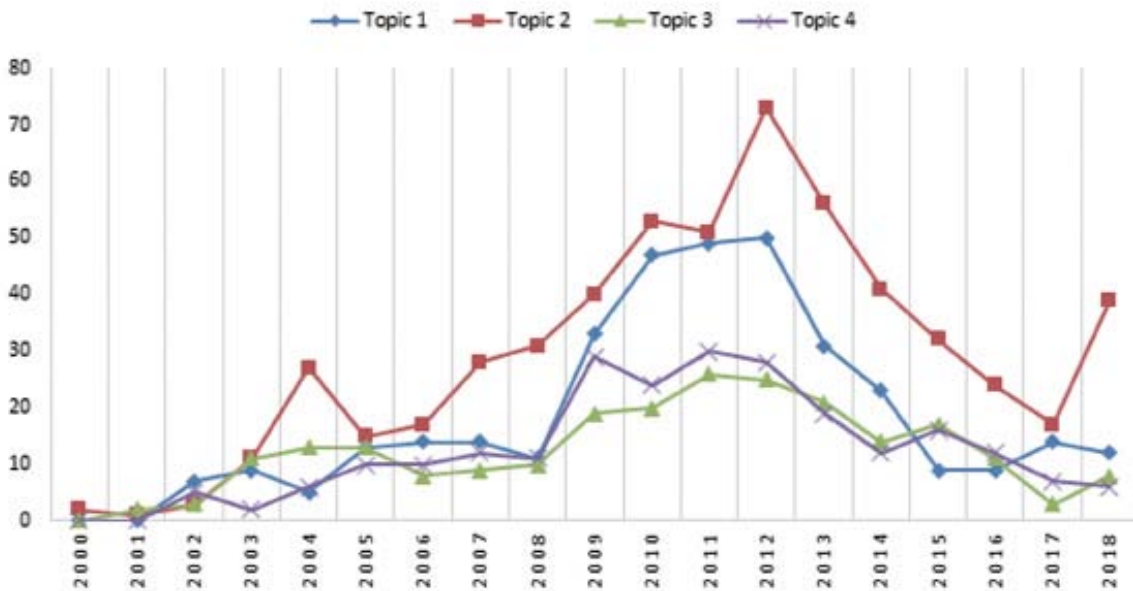
3)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기업정책, 가족친화적 기업복지제도, 가족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적 노동과정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일과 가족 양립 및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한 포괄적 의미 반영하고, 연구 주제와 대상이 조직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친화제도로 분류하였다.

4) 가족환경은 물리적·생물학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심리적·구조적 배경의 총체이며 인간행동과 발달을 위한 맥락이 된다. 특히 물리적·생물학적 환경, 인위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은 인간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족생태학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Boss & Doherty, 2017: 451). 다만, 이 연구에서는 토픽2에 제시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심리적·신체적 측면, 학교, 기장, 교회,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근접 환경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이 교환되는 일차적 환경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토픽2의 주제를 가족환경으로 분류하였다.

2, 시기별 변화분석

토픽 1(기업경영과 가족친화제도)은 2000년대 이후부터 점차 증가추세였으며, 2008년~201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토픽 2(가족환경과 가족기능)는 2004~2005년에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2000년~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였다. 토픽 3(가족관계와 가족가치관) 역시 2000년~2005년까지 증가추세이다가 잠시 주춤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토픽 4(가족주의와 가족서사)는 다른 토픽에 비해서 증감이 자주 반복되었다. 전반적으로 2003년~2009년까지 증가추세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이다.

Figure 3. Trends by Topic since 2000s



보다 정확하게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도출된 토픽의 시계열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0~2009년을 전기로, 2010~2018년을 후기로 나눠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때 독립변수를 시기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각 연구 토픽의 시기별 비중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계수의 양수와 음수에 따라 +으로 갈수록 최근 연구로 Hot 토픽이며, -로 갈수록 Cold 토픽으로 볼 수 있다. 유의하지 않은 토픽은 중립 토픽을 의미한다.

Figure 4. Hot/Cold Trends by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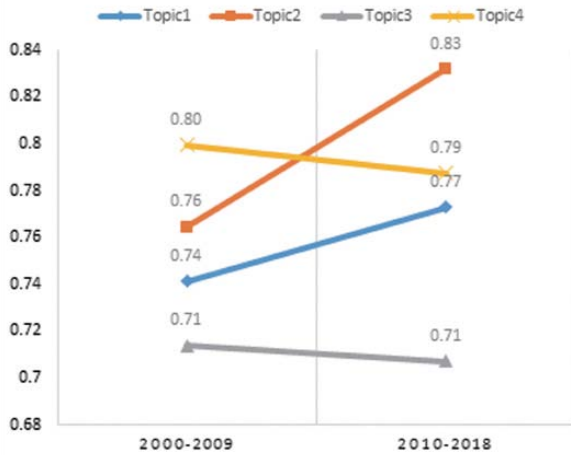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opic	coef	Trend
Topic 1	17.8359	HOT
Topic 2	15.9516	HOT
Topic 3	0.8855	-
Topic 4	-14.5391	COLD

분석 결과, 토픽 1(기업 경영과 가족친화제도)과 토픽 2(가족환경과 가족기능)는 최근까지도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가족기능 축소와 가족 해체의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가족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다(Seol et al., 2018). 반면에 토픽 4(가족주의와 가족서사)는 최근 10년 동안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 가족관련 학술적 연구동향을 토픽모델링을 통해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토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가족연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별로 볼 때 가족환경 및 가족기능(토픽2)과 관련된 주제가 561편, 단어비중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업경영과 가족친화제도(토픽1)가 350편, 25.6%로 많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가족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족기능'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정책적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다뤄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Jang, 2018).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연구가 현재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정상가족 모델에서 비껴난 다양한 유사(quasi)-가족유형과 친밀성의 형식이 출현하는 동시에 이른바 '탈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가족사회학적 진단과도 연결되어 있다. '탈가족화'는 한편으로 하나의 정상가족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가족 구성의 가능성을 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가족 구성원들이 담당했던 일들이 외부화되고 사회화됨을 의미한다. 결국 가족 연구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를 국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다뤄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픽 1(기업경영과 가족친화제도)과 토픽 2(가족환경 및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했던 데는 사회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05. 1. 1.]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시행 2005. 9. 1.] [법률 제 7496호, 2005. 5. 18., 제정]’의 시행과 더불어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08. 6. 15.] [법률 제8695호, 2007. 12. 14., 제정]’ 등 제도적·법적 변화가 있었으며, 2008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던 정책 가운데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기업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가족정책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가족기능강화와 더불어 달라진 가족환경의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다만, 토픽 1과 2는 문화 및 윤리 영역에서의 측면으로 확장되기 보다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이에 따라 기존의 ‘정상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축소와 변화의 지점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가족연구의 기능주의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기적 측면이다. 시기적으로 토픽 2는 Hot토픽으로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볼 수 있다. 가족이 사회복지학적 정책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계속 다뤄져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연구결과는 Cold와 중립토픽으로 보여진 연구들의 한계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후기 근대사회에 이뤄진 가족의 급격한 형질변이와 가족구조의 변동으로 나타난 변화는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개념이나 가족윤리와 가치지향성에 대한 성찰과 전망 없이는 진단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연관된 토픽 4(가족주의와 가족서사)는 오히려 2010년 이후에 감소추세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방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형태 및 구성에 대한 인식론적 포용성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과 더불어 특수한 사례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픽 3의 주제 발굴 역시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이 다양한 가족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주체들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관찰과 공감 및 이해에 기초해야 하며, 그런 한에서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의한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국가와 사회의 서비스와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확장과 이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rrett, M., McIntosh, M. (1991), 『The Anti-social Family.』, New York: Verso Books.
(바렛 미셸·맥킨토시, 메리(2019), 배은경·김혜경 옮김, 『반사회적 가족』, 서울: 나람북스).
- 김혜경 (2019) 『가족 구조에서 가족실행으로: 가족실천과 가족시연 개념을 통한 가족연구의 대안 모색』, 한국 사회학, 53(3), 217-253.
- 최유정 (2010) 『가족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1948-2005년까지』, 서울: 박문사.
- 장임숙 (2018) 『Co-word analysis를 통한 가족 패러다임 분석』, 지방정부연구, 22(3), 209-532.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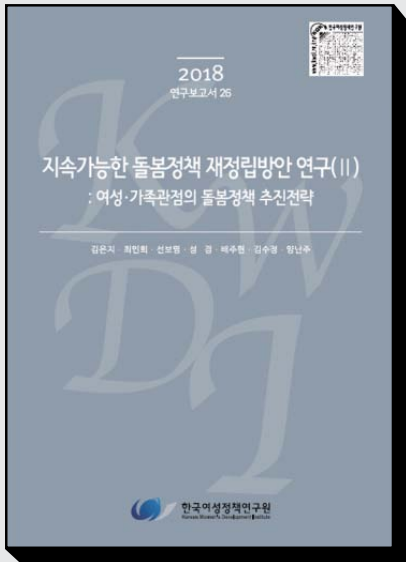
FOCUS

정책보고서 리뷰

-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연구(2):

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돌봄정책 추진전략

*「정책보고서 리뷰」는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이슈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사례와 향후 과제를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연구(2): 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돌봄정책 추진전략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김은지

발행월: 2018.12.

종류: 기본 연구보고서

김은지·최인희·선보영·성경·배주현·김수정·양난주(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연구(2): 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돌봄정책 추진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문출처: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4&idx=122927>

<배경>

-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의 현 지점을 진단하고, 돌봄의 사회화의 탈가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임.

<주요내용>

- 본 연구는 1차 년도의 아동돌봄정책과 노인돌봄정책에 대한 제도사 분석을 통해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현황 진단연구에 이어 2차년도 연구로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심화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첫째, 1차년도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아동돌봄정책과 노인돌봄정책은 탈가족화 및 공식화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밟아왔으며, 특히 2010년을 전후하여 '무상보육·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보편주의 원리가 돌봄정책에서 본격화되어 왔음. 그러나 질 높은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기존의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 비용중심의 이용자지원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출발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2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 연구자료를 재구조화하여 불완전한 탈가족화 형태인 ‘양육수당’,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영역에 대한 지출이 전체 아동돌봄, 노인돌봄 지출의 10% 내외 수준임을 지적함. 보편적 권리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기관의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탈가족효과가 제한적인 수준, 그리고 가족돌봄자의 ‘독박돌봄’과 ‘소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함.
- 셋째, 아동돌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 일자리 차이는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금수준, 근무시간 등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남.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는 국공립 직영이 국공립 위탁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아동돌봄의 공공성을 타 국가와 비교한 결과, 기관보육률은 높지만 공공부문, 지방정부를 통한 공보육이용률은 매우 낮음.
- 넷째, 노인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소유권적, 재원적, 통제적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소유권, 재원, 통제 세가지 차원에서 공공성이 모두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통제적 차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제 뿐 아니라 사유성이 높은 장기요양시장의 구조와 성격을 완화하는 별도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 격차를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총 보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보육서비스의 계층효과는 분절된 보육시장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보육시장의 공공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보임.
- 여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소득수준과 가족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 방문요양급여 결정 영향요인 분석결과, 소득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족자원의 경우,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이 노인을 돌볼 경우 방문요양급여 이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배우자나 아들 등 남성이 돌볼 때는 방문요양급여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추진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 시 돌봄의 성불평 등 구조를 완화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시사점>

■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의 필요성

- ‘국공립 어린이집 40%’, ‘국공립 유치원 40%’는 국정과제의 주요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국공립 유아교육 인프라 확충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민간시장에 질적 표준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비율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소유권적 차원의 공공성 제고는 개인지불방식의 재원 외에 인프라에 대한 직접투자방식의 지방정부재원이 장기요양제도에 투입되기에 재원 차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됨.

■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돌봄시설모델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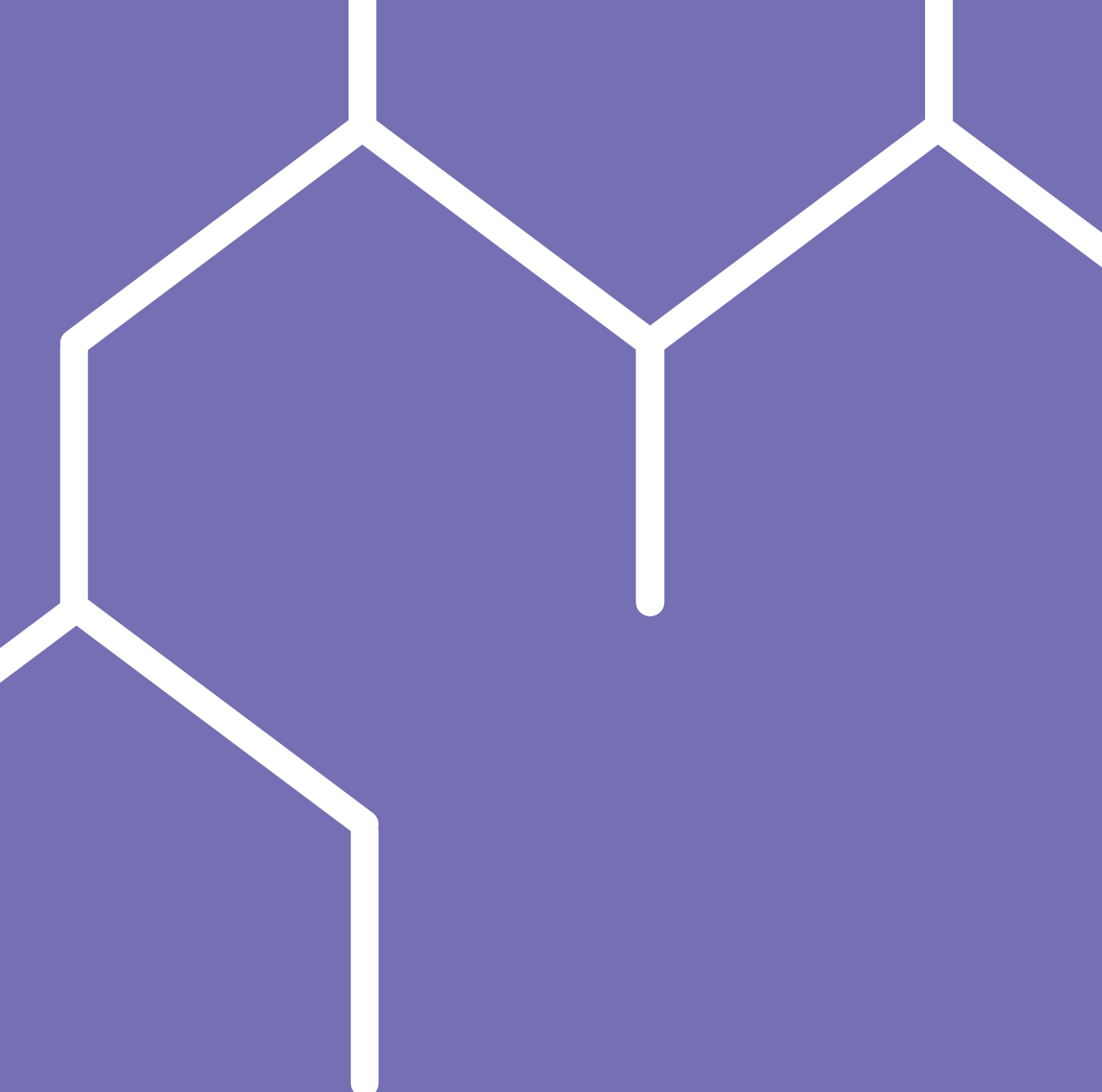
- 돌봄자영업자 모델에서 준공무원 모델로 정책적 실험을 해볼 필요성이 제기됨. 어린이집의 공공성 분석 결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 보육교사의 호봉과 경력에서 우수한 일자리와 친화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공공성 극대화 모형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판단 됨. 정부는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보육과 요양등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립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직영관련 종사자 직접 모델도입방안을 논의 중임.

■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이 집합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

- 돌봄은 일반화의 보편원리가 아닌 반응성과 개별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의원리임.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돌보는 사람과의 상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 간의 관계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식적 돌봄노동이 구조화 될 필요성이 있음.
- 덴마크는 돌봄서비스가 공공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고용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중앙차원에서 집합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결정은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쳐 노동착취나 부적절한 자원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앴.

■ **국가의 적극적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돌봄비용지원체계 합리화할 필요성**

- 국가가 책임질 비용부담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시점임. 그동안 국가가 비용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비용지원역할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이 부풀려진 경향이 있음.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필요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